

## 한·러 경제인 초청 오찬연설

나와 우리 일행은 매우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주의 깊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우리의 방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푸틴 대통령과 나의 회담은 발표된 것보다 좀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사항과 더불어서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양국의 이해관계 또는 공동이익의 전망에 관해서 깊이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 정부간, 기업간 협력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의 기대 또한 큼니다.

양국은 기존의 연구주제별 협력관계를 넘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연구로 협력수준을 높이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기초과학기술,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기술, 방위 산업기술에까지 모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앞으로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개발에 대해서 나와 푸틴 대통령은 똑같은 제안을 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투자를 통해서 자원개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러시아 또한 한국 자본이 참여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아직 자원개발에 관한 정책과 체계를 완전히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한국도 러시아 자원개발에 필요한 정도의 조직과 자본을 제도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생산은 우랄산맥을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시베리아로 그 중심이 이동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있어서 한국이 적당한 에너지 파트너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나라간의 에너지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할 만큼 절실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러 간의 협력방법에 관해서 좀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아가면 에너지 자원 개발 투자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신속하게 갖추 생각입니다. 기업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새로 합의한 사항이나 취득한 정보에 맞게 필요한 준비를 하실 것을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준비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러시아 정부나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국간의 에너지 자원 협력은 순수하게 경제적 원칙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경제적 효율성 말고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한 물류와 에너지 자원, 정보통신 네트워크 같은 분야에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의 성공은 국제적인 평화와 국내적인 정치안정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부와 기업인 여러분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푸틴 대통령도 극동 에너지 자원 협력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저도 좀더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는 조급함을 느낄 만큼 적극적입니다. 앞으로 기업인 여러분이 경제적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양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003년 양국간의 무역액은 41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것이 25억 달러이고, 러시아로 수출한 것이 16억 달러여서 계산상으로는 약 9억 달러 정도 한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지도자들을 만나 보면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대단히 부족하고, 적극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관계는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쌍방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소련연방의 해체과정, 그 뒤의 정치적 불안정, 1998년 모라토리엄 같은 사건 때문에 처음의 기대보다는 많이 위축되어 버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 러시아의 정치·경제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전 국민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역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과 계획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를 보면서 러시아가 참 큰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비롯해서 러시아가 가진 역량과 잠재력을 보면서 여전히 대국이고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받은 인상은 문화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협력과 공동이익을 위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는 많은 역할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맞도록 앞으로 한·러 관계 발전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역사와 높은 문화적 수준을 가진 러시아와의 활발한 교류는 한국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기업인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